

사회

■ 중선원 고무탄 사망 급박했던 상황

해경 단정 접근하자 삼지창·도끼질

대원 2명 삼에 맞아 바다 빠질 뻔

부상 선원 헬기로 병원 긴급 후송

목포해경 소속 3009함(함장 김국성 경정)은 지난 16일, 작전에 나선 후 바다에서 여섯 번째 아침을 맞았다. 지난 10일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경비 작전에 나섰지만 이날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다. 한·중 양국 근해의 금어기 해제 첫날로, 무허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대원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불을 뿜었다. 작업을 중단하고 뱃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3009함은 2해리(4.63km)를 뒤쫓았다. 함정 대원 16명은 헬멧 등 보호장비로 무장을 시작했다. 선단 중 한자로 작업을 하던 쌍타망(한국의 쌍끌이) 어선 중국선적 93t급 요단어 23827호(주선), 23828호(보조선) 등 2척이 뒤쳐지기 시작했다.

김국성 함장은 오후 3시30분께 중국어선에 근접시키기 위해 대원 16명을 단정 2척에 오르도록 지시했다. 단정은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서 확성기

로 정성을 명령했지만 소용없었다.

3시35분께 단정이 어선에 접근하자 중국 선원 24명이 저항했다. 예상했던대로 매우 격렬했다. 어선마다 1.5m 길이의 쇠파이프 14개를 배 주위에 걸고 접근을 방해했다. 단정이 가까이 접근하자 저항은 더 심해졌다. 1.2m 길이의 삼지창과 도끼, 삽, 톱 등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나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경대원 2명이 삼에 맞아 쓰러졌다.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질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안전장비 덕분에 큰 부상은 없었다.

대원들의 안전이 걱정되자 한 대원은 위기상황 매뉴얼대로 40mm 다목적 발사기에 6발의 고무탄을 장착했다. 그리고 3시42분 첫발을 쏘았다. 그래도 선원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잇따라 2~4번째 스프링탄을 발사했지만 허공으로 빗나갔다.

조속 6~8m의 바람과 1.5m 높이의 파도에 단정이 심하게 흔들려서 조준이 쉽지 않았다. 3시45분께 5번째 스프링탄이 발사됐다. 3시50분께 마침내 승선하며 상황이 종료되는 듯했다.

그러나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대원들은 배에 오르자마자 선상에서 쓰러져 있는 중국 선원 장모(44)씨를 발견

했다. 의식이 없었다. 곧장 특수기동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다른 대원은 3009함에 부상 보고를 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장씨를 3009함으로 옮겼다. 오후 4시였다. 상황이 심각해져 후송을 결정했다. 오후 4시36분께 헬기를 이용해 목포 한 국병원으로 장씨를 이송하기 시작했다. 비치된 산소마스크를 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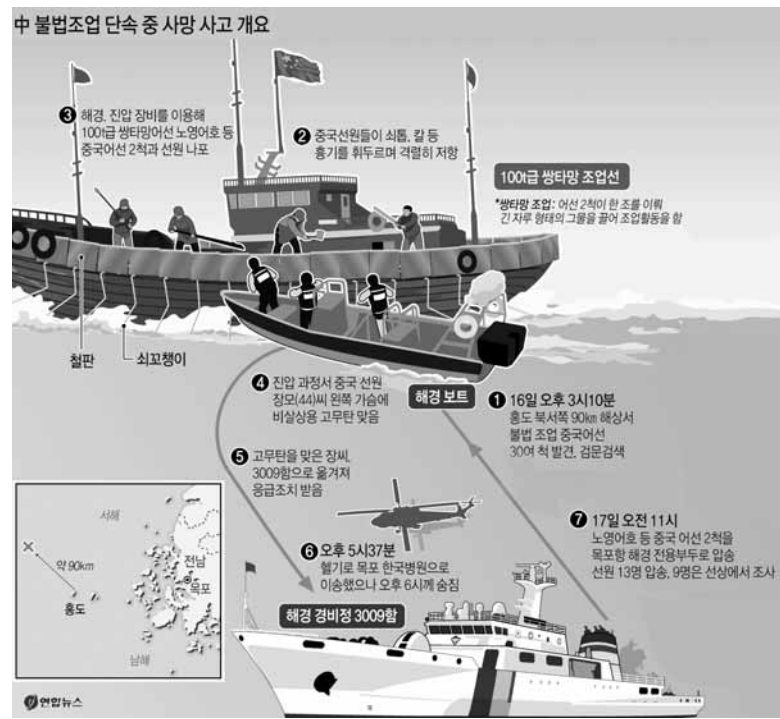
약 1시간 뒤인 오후 5시30분께 목포 한 국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들이

심폐소생기를 이용해 장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날 오후 6시께 숨을 거뒀다. 대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강성희 목포해경서장은 17일 오후 수사 1차 브리핑에 앞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선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목포해경 직원들이 17일 오전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한 중국 선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 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 사고 개요

나원침 (8670) 김종두



딸 부정 취업 도의원 조사

지난해 원장 자살로 파문을 일으킨 전남 문화산업진흥원 채용비리와 관련, 전남도의회가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광주지청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남도의회 A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딸이 진흥원에 부정 취업한 경우 등을 조사했다. A 의원의 딸은 2008년 7월 진흥원 직원 채용 당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채용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해 말 입건됐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강진서 절개지 붕괴 3명 사망

하수도 배관공사중 흩더미 파문혀

하수도 배관공사 중 절개지가 무너져 3명이 숨졌다. 17일 오후 4시 46분께 강진군 작천면의 한 오리농장 인근 절개지가 무너져 농장 대표 이모(37)씨와 이씨의 처남 송모(41)씨, 작업인부 김모(61)씨 등 3명이 5m가량 높이 흩더미에 파묻혔다. 사고 직후 오리농장 관리

인 김모(56)씨가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경찰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이날 오후 6시35분께 흩더미에 묻힌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하수도 PVC 배관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굴착기 기사 2명, 작업인부 3명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10m 높이의 절개지 밑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양쪽에서 흩더미가 쏟아졌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잘 지켰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대형마트 21일 휴일영업 어려울 듯

법원, 영업규제 집행정지 결론 못내

휴일 의무휴업 시행을 둘러싸고 광주지청 각 자치구와 대형마트간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변론에서 서로의 주장만 맞선 채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21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휴일 영업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나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음주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는 의무휴업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시·군·구의 단체장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롯데쇼핑(주) 등 대형마트 측은 “조례가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본래 가지고 있던 위법성은 그대로”라며 “개정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 적용은 문제가 있는 이전 처분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형마트 등이 광주시 5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점포 영업 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만원권 위폐 사용범 검문 불응 도주

○편의점 등에서 5만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한 용의자들이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 ○17일 나주경찰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8시께 나주시 중앙동 한 편의점에서 신고된 위조지폐를 확인한 결과 영산동, 삼영동 등 총 4곳의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 ○헬멧을 쓴 용의자 2명은 담배 한 갑을 사서 거스름돈을 챙긴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구 백운동에 나타났다. 행방이 묘연.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ukrakjeon Namgol-dang' (극락전 남골당). It features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promoting a 'Wudeungsan Munbincheong' (무등산 문민청사) with a focus o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Advertisement for 'ENG' (이앤지) paint. The headline is '방수' (Waterproofing). It lists benefits like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No technical skills needed, anyone can do it themselves). It shows three buckets of 'ENG 방수' paint. Contact information: 062-367-7755, Kwangju Kwangyeoksi Seogu Nongseong 660-29.